



# 光州日報



## 평화·인권·통일의 광주

## 1 세계는 광주를 주목한다

## ‘신화’ 완성하러 왔다

# 지구촌에 평화도시 이미지 심자

광주에서 세계 평화의 해법을 찾고 한반도 통일의 불씨를 살릴 대규모 행사가 이달 중 잇따라 열린다. 일주일 후에 열릴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와 '6·15 민족통일대축전'은 평화·인권·통일의 도시인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두 행사의 의미를 조영해보고, 행사에 즈음한 우리의 자세를 3차례에 걸쳐 나눠 쓴다.

### 노벨평화상 정상회의·통일축전 광주 개최

전 세계가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와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동시에 열리는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세계 평화의 사도들이 대거 참여하는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15일~17일)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6·15 민족통일대축전'(14일~17일)이 잇따라 광주에서 개최된다.

두 행사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더욱이 아시아지역 민주화운동 역사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5·18 민주화운동의 도시인 광주에서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의는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중 생존자 27명 가운데 7명과 수상단체(16개) 중 7개 단체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만큼 '평화·인권'의 도시로서의 광주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만 열렸던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타 국가 도시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광주'와 '5·18'은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세계 평화 확산을 바라는 이들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6·15 민족통일대축전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과 동시에, 이를 확산시켜 아시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사라는 점에서 광주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에 내걸린 '6·15 민족통일대축전' 대형 걸개그림(가로 54m, 세로 14.4m)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축전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워싱턴기자 jrwi@kwangju.co.kr

는 세계적인 평화·인권·통일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밥을 나눠 먹으며 독재에 맞섰던 항쟁정신과 5·18 나눔의 정신, 20여년을 넘기면서 축적된 민주주의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제적으로 조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특히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의 참가자들이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를 이룬 5·18 정신을 재조명과 동시에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확산과 인권신장을 위한 방안 모색, 평화 확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광주'와 '5·18'은 세계 속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 이 행사들을 통해 국제 도시로서 도약하고, 이를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연결시키는 계기를 마련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와 민족통일축전은 우리가 경험한 어떤 국제행사보다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의의도 깊다"면서 "시민들의 역량으로 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 23인 태극전사들 독일 입성

### World Cup D-2

### ▶ 관련기사 2·6·8·12·22면

‘끝나지 않은 신화’를 완성하러 왔다.

독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전 국민의 열원을 베푼 가슴에 안고 '결전의 땅' 독일에 입성했다. 아드보카트는 1차 베이스캠프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를 떠나 7일 새벽 0시15분(이하 한국시간) 독일 '뮌헨-본 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다.

전세기 편으로 1시간15분 동안 바다를 가로질러 '유럽 대륙의 심장'으로 날아온 23인의 월드컵 태극전사들은 저마다 가슴 속에 자랑스러운 태극호의 결의를 아로 새긴 채 트랩을 내려왔다.

오는 13일 오후 10시 프랑크푸르트 코메르츠방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토고와 본선 첫 경기까지 남은 시간

은 단 일주일,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물러서서도 안되는 결전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서울시청앞 광장을 비롯해 전국을 '붉은 물결'로 뒤덮은 4천만 고국 팬들의 환성과 기(氣)가 이어진 이 곳 뮌헨까지 전해진 분위기다. 태극전사들은 아드보카트 감독, 펠 베어백, 압산 고트비, 홍명보 코치의 뒤를 따라 전세기 트랩에서 내리자마자 독일월드컵 대회 조직위원회가 제공한 공식 전용버스를 타고 뮌헨 교외 베르가슈-글라드바흐시 카데텐슈트라세에 마련된 숙소인 '그렌드호텔 슬로스 벤스베르크'로 향했다.

보안상 문제를 감안한 조직위의 방침에 따라 뮌헨-본 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지 않고 곧바로 계류장에서 숙소로 옮겨가는 이동 방식을 택했다.

선수단은 호텔 체크인에 앞서 베르가슈-글라드바흐시 시장의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社 告

## 제18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 김영철 광주조달청장 '여성기업 지원사업' 강연

### 13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3일 오후 6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18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철 광주지방조달청장이 강사로 나서 '여성기업 지원조달사업'을 주제로 강연하게 됩니다. 포럼은 남녀 시민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일시 : 6월 13일(화) 오후 6시
- 장소 :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 주제 : 여성기업 지원조달사업
- 강사 : 김영철 광주지방조달청장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41

光州日報社·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제 51회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개축제(유치부) 공모**  
접수마감 : 6월 1일 ~ 21일까지  
▶ http://www.kwangju.co.kr ▶ 전화 : (062)220-0541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 전화 : (062)770-2111 ▶ 팩스 : (062)770-4800-4  
새로운 탐사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전화 : (062)353-1111 ▶ 팩스 : (062)353-3000

**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 전화 : (062)770-7000 FAX : (062)770-4802

## 열차운행 조건 원자재 제공

### 남북경협위, 9개항 합의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 12차 회의에 참석중인 양측 대표단은 6일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경공업 합의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9개항의 '경협위 합의문'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4면>

남북 양측 대표단은 5일 방북후 이날 새벽까지 위원장 및 위원간 밤샘 연세접촉을 통해 열차시험운행,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 현안에 대한 이견조율을 벌인 끝에 이를 두가지 합의문을 채택, 아침 중 결의의를 통해 발표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열차시험운행 문제와 경공업 원자재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의 경우 열차시험운행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대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고 '경협위 합의문'에 명시했다.

남북이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열차시험운행 무산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정상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

# 난, 변하고 싶어

내가 변덕쟁이랴?  
천만의 말씀!  
난 싱긋하게 변하고 싶은 10대라구.  
센스틱 뽀뽀뽀뽀뽀가 있으니까  
톡톡 터지는 멜론향과 새콤달콤한  
과일향까지 - 입술이 변한다.  
싱긋하게 -

아름다운 입술  
**SENSTICK**  
센스틱이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이유  
- 예식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상급한  
- 명품향 천연의 과일향이다 오래 지속됩니다  
- 입술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입술  
- 치료효과 및 보습효과로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 그다만을 위한 변신의 입술을 가져다 줍니다.